

# 항암화학요법 실시 시 소요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탐색 연구 : 외래 유방암 환자를 중심으로

서 미 숙 (아주대학교병원 혈액조양내과외래 간호사)

[연구목적] 유방암 환자 치료법의 하나인 항암화학요법은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고 있다. 항암화학요법은 유방암 환자의 중요한 치료법으로 호나자들은 치료의 부작용인 식욕부진, 오심과 구토, 복통, 설사, 피부 점막의 손상, 탈모,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 등의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전문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환자 들의 이러한 불편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은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외래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불편감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항암화학요법을 위하여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들의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러 외래에 내원한 유방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 2000년 4월 24일부터 2000년 12월 22일까지 자신이 유방암이라는 것을 알고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할 것을 동의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도구] 유방암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 흐름도를 개선하여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는 형태에서 약물주사실의 환자 침상에서 진료로 보는 병동 회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혈액조양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 소요시간 check list를 중앙전문 의사와 중앙관련 간호사의 자문을 얻어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분석방법]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소요시간은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항암화학요법 흐름도로 실시하였을 때 항암화학요법을 받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4시간 30분이었으나, 항암화학요법 흐름도를 개선 후 2시간 42분으로 1시간 48분의 단축 효과가 있었다.

[결론 및 제언] 기존의 항암화학요법 흐름도를 개선하여 외래환자를 병동 회진의 개념으로, 주치의가 외래 약물주사실 환자 침상에서 진료를 보는 형태로 전화하였을 때 진료 및 치료시간의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탐색연구로서 앞으로 방법적인 면을 보강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